



- ㄷ. 가사류 : 가사, 납의
- ㄹ. 겹옷류 : 겹옷, 홑옷, 낚은 솜옷, 새 솜옷
- ㅁ. 소매류 : 소매
- ㅂ. 옷깃류 : 옷깃, 옷깃
- ㅅ. 바대기류 : 등바대, 고의밑, 신모형, 나막신

③ 신발부분

- ㄱ. 신류 : 목이 긴 신, 보통신, 가죽신, 禮服신
- ㄴ. 보신류 : 보신, 마른신(운혜)

④ 허리부분

- ㄱ. 띠류 : 관대띠, 고름, 가죽띠, 무늬문힌 띠
- ㄴ. 단추류 : 단추, 슈, 영
- ㄷ. 노리개류 : 홀, 노리개, 노리개끈

⑤ 기타 부분

- ㄱ. 수건류 : 머리동이는 수건, 허리차는 수건, 이불
- ㄴ. 포대기류 : 포대기, 강보, 아기옷
- ㄷ. 실류 : 실, 베실
- ㄹ. 솜류 : 고운 솜, 솜, 누에고치

귀걸이, 가락지거나 지어 노리개(패물) 등속도 복식범위에 넣었다는 것은 비교적 선진적이라 할 수 있는 의식이다. 더구나 현대의식에서 흔히 假髮을 西歐산물로 간주하는데 우리 민족은 중세기부터 라고 했다는 사실은 대단히 자랑할만한 사실이다. 또 우리는 당시의 시체뎃도 볼 수 있는데 남녀를 구분하고 머리부분, 신발부분 장식에 아주 중시했으며 여성들은 언녕 연지를 썼을 뿐 아니라 기름과 곱도 화장품에 이용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볼 수 있다.

요약하여 말하면 《훈몽자회》에서 아래의 몇가지 점에 당시의 服飾문화양상을 보여준다. 첫째, 16세기 우리 민족의 주요한 복장생활을 보여준다. 이를 테면 남자들은 상투머리에 관 또는 고깔, 갓을 썼고 도포(두루마기)가 위주였고 치마도 입었다. 여자들은 쪽머리양식, 치마, 저고리, 고의 등이 위주였다.

둘째, 현대와 완전히 다른 문화양상을 보여준다. 16세기는 아직 서구문명이 들어오지 못했기에 양복, 구두따위가 우리 민족의 복장생활에 쓰일 수 없었다.

셋째, 우리 민족의 일부 복장문화양식의 변화를 보여준다. 이를 테면 《바지》보다 치마거나 고의(잠방이)가 쓰이고 현대식 모자가 아니라 《관, 고깔, 갓》이 流行되었으며 또 《장갑》이 보이지 않는 것도 주목된다. 그리고 《양말》인 것이 아니라 《보선》이 위주였다고 할 수 있다.

넷째, 장신구의 변화양상을 보여준다. 《귀걸이, 팔찌, 가락지》 등은 현대와 마찬가지로이지만 《목걸이》는 크게 유행된 것 같지 않다. 그것보다 당시는 노리개류가 남녀를 구분하고 크게 성행된 듯 싶다. 그의 서구문명으로 보여지는 《중절모, 안경, 개화장》 등 따위는 아예 볼 수 없다.

다섯째, 당시의 복장재료가 주로 베천(보시베와 굵은 베)과 목천 및 일부 명주, 가죽 등이 쓰였음을 알려준다.

여섯째, 현대사회와 달리 천이 귀중한 16세기 사회에서는 《이불, 포대기, 수건》 따위가 服飾문화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었음을 말해준다.